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 입당송 | 시편 47(46),2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 제1독서 | 지혜 1,13-15; 2,23-24

## 화답송 | 시편 30(29),2와 4,5-6,11-12과 13ㄴ(㉔ 2ㄱㄴ 참조)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

○ 주님께 충실한 이들아,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

○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 주소서.”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니, 주 하느님,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라. ◎

## 제2독서 | 2코린 8,7,9,13-15

## 복음환호송 | 2티모 1,10 참조

◎ 알렐루야.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

## 복음 | 마르 5,21-43<또는 5,21-24.35ㄴ-43>

## 영성체송 | 시편 103(102),1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이광휘 베드로 신부 | 사회사목국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 존재 자체로 힘을 주시니

이주 사목을 하며 이주민을 위한 쉼터에서 자매님들, 아이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합니다. 안타까운 사연과 힘겨운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미안하고 안타깝고 뭐라도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세요?”라고 물으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신부님! 신부님은 존재 자체로 힘이 됩니다.”

오늘은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이 전 세계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청하며 기도하는 ‘교황 주일’입니다. 현 프란치스코 교황은 착좌 뒤 첫 방문지로 이탈리아 최남단의 람페두사섬을 찾았습니다. 이 섬은 전쟁과 가난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아프리카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기 위해 거치는 중간 기착지와 같은 곳인데, 많은 이주자들이 이 섬으로 건너오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교황은 이 비극적인 소식에 줄곧 심장이 가시로 찢리는 듯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징표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교황은 변두리에서 고통받는 약자들과 함께함을 통해 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두 여인을 살리십니다. 먼저 열두 해 동안 하혈하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기 위해 가던 중, 당신에게서 기적의 힘이 나간 것을 아

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그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끼고는 예수님께 사실대로 아뢰입니다. 그 여인은 절망하지 않고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라고 생각하며 예수님께 마지막 희망을 걸고 믿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위로가 되었고, 예수님은 함께함 그 자체로 구원과 평화를 가져다주시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살리는 이야기는 회당장 아이로의 딸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혈하던 여인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신 후,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절망하는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라고 재차 당부하시고, 그 집에 가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십니다. “탈리타 쿴!” 즉, 절망에 주저앉아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란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존재 자체는 죽음의 위협에 다가간 이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2티모 1,10 참조)

우리 모두 하혈하던 여인과 죽을 위협에 처한 딸을 둔 아버지의 마음으로 미사에 참례하며 주님께 다가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오리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하심,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몸과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비롯한 모든 고통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마르 5,34)

예수님께서서는 고질병을 앓아온 중풍병자, 하혈 환자, 죽음 직전인 아이로의 어린 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어 이들이 모두 벌떡 일어나 걸어가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며, 이웃에게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간구합니다.

정영식 프란치스코하비에르 | 가톨릭사진가회







## 비비디바비디부!

‘생각만 하면 생각대로, 비비디바비디부!’

디즈니 애니메이션 ‘신데렐라’에서, 요정이 신데렐라를 파티에 참석할 수 있게 도와주며 부르는 노래 가사의 한 소절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가사처럼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서만 일어날 법한 일인 것 같지만, 저는 신앙의 힘으로 이것이 실현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단, 온전히 나를 주님께 맡기며 그분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때, 내가 곧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저는 판소리를 전공하게 된 이후로 제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길 항상 기도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달란트를 주시는 주님께서 저에게는 ‘목소리’라는 선물을 주신 것이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국악 미사나 신자분들을 위한 성당 음악회에서 노래 봉헌을 하는 것, 평화방송의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제 이야기와 목소리를 들려 드리는 것 또한 그 기도의 실천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이 그분께 닿은 것일까요? 주님께서서는 제가 그동안 꿈꿔 온 다양한 무대에서 오늘도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내일도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게 해야겠다는 기도를 하다 보니 어떤 일이 잘 성사되지 않았을 때, ‘내가 그분 뜻에서 무엇을 벗어났는가? 이번 일에는 어떤 교훈을 주시려 했을까?’라고 되뇌이며, 감정이 앞서기보다는 나를 돌아보며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과 멀어져 제 의지와 욕심대로 살아가려 했을 때, 속상함과 좌절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유진 그라시아 | 국악인

아픔 또한 제가 이겨낼 수 있을 만큼 허락하셨습니다.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통도 기쁨도 적절히 분배하시고, 간절한 기도를 나에게 가장 알맞은 때에 들어주시는 분이 곁에 계시니 참으로 든든하다.’

그러니 저는 앞으로 저의 길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그분의 겸손한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기쁘게 써주실 때, 그리하여 저의 뜻이 그분의 뜻과 같아질 때, 저는 또 ‘생각만 하면 생각대로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겠죠.

지금 글을 쓰는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한마디씩 써 내려갑니다. 이 글이 곧 저의 작은 기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분명 이 기도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겠지요? 비비디바비디부!

나를 이끄는  
성경구절

# 개여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마르코 13:37

최명숙 막달레나  
중계동성당



## 김대건 신부님 기지(機智)와 용덕

올해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해이자 김대건 신부님이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로 선정된 의미 있는 해입니다. 희년을 지내는 동안, 하느님을 사랑하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같은 해에 태어난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모범을 본받아 두 분의 영성을 우리 삶에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성장통을 극복한 이후 김대건 신부님에게서 발견되는 성덕을 뽑아보라 한다면, 용덕(勇德)과 신덕(信德)을

들 수 있겠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편지를 읽노라면, 용덕을 갖춘 그분의 타고난 성격을 만나게 됩니다. “훈춘 기행문”이라고 불리는 김대건 신부님의 서한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성인은 장춘에서 훈춘으로 가던 중 한 객숙집에서 음력설을 맞이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설 첫날은 자정까지 깨어서 새해의 귀신을 맞이해야 한 해의 운이 좋다는 미신에 빠져있었습니다. 성인은 여행에 지쳐 온돌방에서 자려고 했는데, 주인이 다가옵니다.

“일어나시오. 귀신들이 가까이 옵니다. 귀신을 마중 나가야 합니다.” 성인께서는 무슨 귀신이나고 되물으면서 다음과 같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여보, 잠깐 기다려요. 보다시피 나는 지금 잠 귀신에 접해 있소. 지금 오는 귀신 중에 나를 이만큼 기분 좋게 해줄 귀신이 또 있소? 제발 내 귀신과 조용히 즐기게 내버려 뒤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런 귀신들을 나는 모르오.” 그러자 주인은 홀로 중얼거리며, 아마도 앞으로 여행길이 불길할 거라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이처럼 당시 김대건 신학생은 기지와 순발력으로 자연스레 미신도 떨쳐버리고, 여행을 위한 휴식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부제품을 받은 김대건 성인은 육로로 국경을 통과할 때, 보초들에게 들길까 봐 눈길을 맨발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양에 도착해서 교우들을 만나 배를 구해서 서해

안을 횡단합니다. 출항할 때의 상황을 자신의 편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음력 3월 24일(양력 1845년 4월 30일) 돛을 펴고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교우들은 바다를 보고 아주 놀라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 서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어디로 가느냐고 감히 묻지를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에 누구든 질문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농부 출신으로 바다를 거의 본 적도 없는 교우들에게 작은 배로 바다를 건너자고 하면 반대할 것이 분명하므로, 말도 없이 바다를 향해 나가면서 질문까지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이 나룻배는 결국 풍랑에 휩싸여 배가 전복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는 끝장이다. 살아날 수 없을 거야.”라고들 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하느님 다음으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성모님의 기적의 상분을 보이면서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성모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하고 말하였습니다.” 간신히 풍랑에서 살아남은 나룻배는 지나가던 산둥(山東) 배를 만나 상해까지 끌려갑니다. 선교사들은 한결같이 ‘저런 나무토막을 타고 바다를 건널 생각을 하다니! 조선 교우들은 놀라운 신앙을 가졌다.’고 감탄했습니다. 이처럼 김대건 신부님의 신덕(信德)은 선교사의 입국로를 개척하려는 그의 용덕에서 시작했고, 그 용덕은 신부님이 지니고 있던 낙천적인 기지(機智)와 적극적인 실천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김대건 신부님은 마지막 라틴어 편지에서 희망을 표현합니다. “주님! 모든 일을 좋은 결과로 이끌어 주소서!”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 | 한국교회사연구소장



노매드랜드

# 내 쉼 곳은 어디인가?

2020년 감독: 클로이 자오

집이란 무엇일까요? 독일 성 베네딕도회 뮌스터슈바르차흐 대수도원의 사제 자카리아스 하이에스는 『내 안의 휴식처』(바오로딸 펴냄)에서 “집”이라는 단어는 매우 정서적”이라고 했습니다. 집은 누구에게나 가족, 추억, 감정, 냄새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가 말하는 집은 하우스(house)가 아닌 홈(home)입니다. 크기와 위치와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몸과 영혼이 편히 쉬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곳. 그 정서와 역할이 없다면 아무리 크고 화려한 집도 단순한 구조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캠핑카에서 생활하는 <노매드랜드>의 주인공 편(프랜시스 맥도먼드 분)은 자신은 ‘홈리스’가 아닌 ‘하우스리스’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가족과의 추억과 가족을 향한 그리운 마음을 심어놓은 좁고 낡은 밴이 ‘내 집’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같이 살자는 이웃과 여동생, 친구의 제안을 모두 거절합니다. 차라리 새 차를 사는 게 낫다는 조언을 무시하고 거금을 주고 고장 난 밴을 고칩니다.

올해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을 받은 <노매드랜드>는 집을 잃거나 버리고, 대신 캠핑카를 타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편과 그의 친구가 된 데이브(데이비드 스트라탄 분)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영화는 그들의 삶과 상처, 꿈과 위안에 대한 고백과 석고 공장이 폐쇄되면서 우편번호까지 없어진 마을을 떠나 유랑 생활을 시작한 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죽어라 일하다 별판으로 쫓겨난 가족”에 비유합니다. 그들에게 지난 삶은 “돈의 멍에에 속박되어 인생을 망친 시간들”입니다. 황량한 별판과 길 위에서의

유랑 생활은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이자 인생의 발견입니다. 가족의 죽음, 질병, 가난 등 저마다의 사연으로 혼자가 된 그들은 광활한 자연과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교감에서 치유와 안식을 찾습니다. 남편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처와 기억으로 아파하는 편 역시 그들과 동화하면서 성찰과 치유와 관조의 길을 찾게 되지요.

그 선택이 결코 낭만적이거나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몰고 푸르고 광활한 초원을 떠돌아다니던 옛날의 유목민이 아닙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정착의 꿈을 안고 거친 들판으로 나아가던 카우보이도 아닙니다. 자연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으며, 늘 불안한 노동과 고독한 시간 앞에 놓여있는 21세기 유목민의 삶은 불편하고 불안하며, 고단하고 애잔합니다.

편과 달리 우리는 그들과 쉽게 동화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거주와 노동과 생활은 한곳에 머물러야 ‘안정적’이라는 관념, 영화가 의식적으로 외면한 그들을 길로 내몰아버린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적 시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선택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2008년 금융 위기와 실업, 주택 투자 버블의 붕괴, 빈부격차가 스며들어 있으니까요.

이런 현실에서, ‘영끌’이라도 해서 내 집을 가져야 더 가난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세상에서 <노매드랜드>는 집착보다는 버림과 비움과 지움으로 자연과 자유와 내 삶으로 회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진정 ‘내 쉼 곳(집)’은 내 마음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대현 요나 | 국민대 겸임교수, 영화평론가





# 인간은 무엇인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그의 선함은 무엇이고 악함은 무엇인가?(집회 18,8)

| 멕시코 |

안녕하세요? 이곳 멕시코는 벌써 초여름 날씨가 시작된 듯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코로나도 있었지만, 더 위 때문에 여러모로 힘이 들었습니다. 이곳 주위에는 선인장이 많은데 일 년 내내 강수량이 아주 적은 환경에서 그 더위를 버텨내는 모습이 생명의 강인함을 느끼게 합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이 있다면, 미국 내 백신 접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일상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점입니다. 저 역시 접종을 마쳤기에 한결 마음이 편안합니다. 멕시코 도시인 후아레스는 미국과 여건이 조금 다르지만, 멕시코 사람들 특유의 낙천적이고 쾌활한 모습으로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여러 삶의 모습을 가까이서 바라보노라면, ‘인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유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는 반면, 어떤 이는 가난과 폭력이 만연한 불안한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은 고향을 떠나 낯선 나라로 이주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세상 속에 만연한 불평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 속에서 과연 ‘인간답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지, 하느님께서도 여러 피조물의 ‘다름’을 인정해 주셨는데 왜 인간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포용하려고 하지 않는지 말입니다.

‘다름’에 대한 배척과 차별이 만연한 세상에서 ‘가톨릭다움’이란 타인에 대한 환대와 포용의 자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에 여러 개의 방이 있다고 하셨듯이, 비록 누군가가 나 자신과 피부와 인종, 그리고 국적과 이념이 다르다 해도 그들 또한 나와 똑같은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

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방이 하나밖에 없다고 여기는 이들은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떤 부류의 사람, 어떤 모습의 교회를 바랄까요?

제가 일주일에 하루 방문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시설은 그러한 환대와 포용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민자들 앞에서뿐 아니라 봉사자들 모임에서도 그들을 ‘이민자’가 아니라 ‘방문객’이라고 표현하는 것에서도 드러나듯, 비록 시설은 가정집처럼 안락하진 않지만, 머무는 시간 만큼이라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여러 공간에 환영하는 의미를 담은 그림과 글귀가 다채롭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사제’라고 특별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어적 소통의 한계를 지녀 눈치밥만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 봉사자가 함께 만들어 내는 선한 영향력을 체험하고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활력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고통과 울부짖음이 있는 곳에 다가가기는 망설여지기 십상입니다. 한번 발을 들여놓더라도 곧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사명은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은 이 세상’을 대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빛으로 계속해서 비추는 일일 것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초여름의 길목에 교우 여러분 모두 강인하게 지내시길 바라며, 각자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복음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최우주 필립보 신부 | 멕시코 선교



후원 ARS 1877-1336  
또는 QR 코드 접속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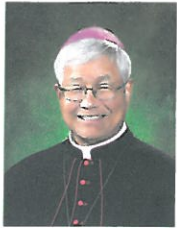
• 후원 문의: 727-2407, 2409 | 후원 계좌: 우리은행 454-035571-13-101 (재)천주교서울대교구  
•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7월 1일(목) 14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송영호 국장 신부, 김윤상 차장 신부, 유동철 신부(과테말라 선교 후 귀국)



오늘(6월 27일)은 '교황 주일'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6월 29일(화)은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입니다

유홍식 주교,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에 임명, 대주교 승품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현 대전교구장 유홍식 라자로 주교를 현재 교황청 성직자성(Congregation for the Clergy) 장관 베니아미노 스텔라(Card. Beniamino Stella) 추기경의 후임으로 임명하시고, 대주교 칭호를 부여하셨습니다.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 ① 밤 9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모경을 바친 후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를 바칩니다.
- ② '평화를 구하는 기도' 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함께 바칠 수도 있습니다.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50년 7월 3일 이현중 야고보 신부(28세)
- 1980년 7월 4일 김재문 미카엘 신부(26세)

\*1950년 7월 3일 선종하신 신부님은 근현대 신앙의 증인들로 한국 전쟁 중 순교한 분입니다.

[www.vaticannews.va/ko.html](http://www.vaticannews.va/ko.html)



### 바티칸 뉴스 한국어 페이지

교황님의 기도와 강론,  
바티칸 소식,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하는  
바티칸 뉴스

### 교구청알림

#### 용문청소년수련장 가족캠프 안내

가족과 함께하는 전례 및 프로그램 진행, 수영장 사용 가능 / 문의: 031)774-3587  
 때: 7월16일~8월29일(2박3일 / 총 9차수)  
 접수: 6월15일(화) 오전 10시부터 / 선착순 마감  
 자세한 일정 및 문의는 용문청소년수련장 홈페이지([www.yongmooncamp.or.kr](http://www.yongmooncamp.or.kr)) 참조

#### 2022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입생 모집

사제지망 일반예신 학생 및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희망하는 수도자, 남녀 평신도를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고교졸업(예정)자, 대학수교자, 수도자, 만학도(1987년 2월28일 이전 출생)  
 모집전형: 잠재능력우수자전형, 가톨릭지도자추천전형, 학교장추천전형, 농어촌학생전형  
 원서접수: 9월10일(금)~14일(화) 인터넷 접수  
 교리시험 / 면접: 11월5일(금) / 문의: 02)740-9704, 9705  
 홈페이지: <http://songsin.catholic.ac.kr>

2021년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하반기 교회음악가자격증 과정 모집  
 서울대교구장 인준의 전문(초·중급) 교회음악가 자격증 수여(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콘서바토리 과정)

대상: 음대 졸업자(2년제 포함) 및 본 아카데미 실기전문과정 중급 이상의 실기 능력을 가진 자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원서접수: 7월12일(월)~23일(금)  
 접수방법: 아카데미 사무국 전화문의의 요망  
 문의: 02)393-2213~5(<http://www.casm.site>)

|     |      |                                             |
|-----|------|---------------------------------------------|
| 하반기 | 개강일정 | 2021년 9월 개강                                 |
|     | 교육방법 | 이론과목 수강 및 연주를 위한 실기레슨, 토요 미사를 통한 실제 전례중심 교육 |
|     | 학기운영 | 3학기 과정 / 직장인을 위한 주중 저녁 / 주말반 운영             |
|     | 입시일정 | 원서접수 → 면접전형(실기) → 합격자발표 → 등록                |

#### 슬기로운 부부생활을 위한 자연주기법(NFP) 기초과정 교육 9기

교육명: 슬기로운 부부생활을 위한 자연주기법(NFP) 기초과정 교육 9기  
 대상: 예비·신혼부부, 개인 모두 신청 가능  
 때: 7월15일~9월16일 매주(목) 20시~21시30분(10주)  
 강의방식: Zoom을 통한 온라인 강의  
 회비: 부부 5만원, 개인 3만원(교재 포함)  
 접수기간: 7월9일(금)까지 선착순 모집  
 문의(신청): 02)727-2351 생명위원회

#### 민족화해위원회

1)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1276차 미사(내 마음의 복된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6월29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서울대교구 황주 본당, 사창 본당  
 미사 후에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분당을 위한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2) 2021년 'DMZ 국제청년평화순례' 참가자 모집  
 대상: 20세~30세(내·외국인 청년) / 회비: 5만원  
 때: 8월16일~21일(5박6일)  
 곳: DMZ접경지역(강화-파주-연천-철원-고성)  
 접수: 6월30일까지 마감(홈페이지에서 접수)  
 본 행사 참가시 '2022국제바티칸행사'에 우선 참여권 부여 / 문의사항 및 자세한 내용은 전화(02)753-0815 및 홈페이지(<http://caminjok.or.kr>) 참조

홍보위원회 특강 <하느님의 선물, 시(詩)가 있는 7월의 여름밤> 수강생 모집  
 가톨릭이 자랑하는 4명의 시인을 초대해 시를 통한 지혜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 문의: 02)751-4104  
 때: 7월5일~26일 매주(월) 19시30분~21시(선착순 60명)  
 곳: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회비: 6만원(일괄 접수)

|       |                                  |     |
|-------|----------------------------------|-----|
| 7월5일  | 너의 연인이 되기 위해 오늘 나는 별이름 하나를 더 읽는다 | 신달자 |
| 7월12일 | 예곤 실례를 사랑한다면, 한번쯤은 체스키크롬로프       | 김해선 |
| 7월19일 | 당신은 언제 노래가 되지                    | 허연  |
| 7월26일 | 울지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 정호승 |

강좌 신청: 네이버카페(<https://cafe.naver.com/catholicartstory>)

#### 향심기도 소개강의

대상: 누구나 / 지도: 이승구 신부  
 때: 7월6일부터 매주(화) 14시~15시30분(4주간)  
 곳: 영성센터 A313호(구.계성여고)  
 회비: 2만원 / 문의: 010-4565-8898

####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윤심연 개인전: 1전시실  
 '2021 성미술 청년작가공모전' 선정 작가 김용덕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6월30일(수)~7월5일(월)  
 정다원, 설진화 한국화전: 2전시실  
 전시일정: 6월30일(수)~7월12일(월)

#### '임 가신 길, 임 따라 걷는 길' 도보 순례

때: 7월10일(토)·20일(화) 오전 9시부터  
 코스: 김대건 신부 치명 순교길(우포도청 터~절두산순교성지) 도보순례 / 문의: 02)2269-0413  
 회비: 1인 7천원(간단한 간식 제공)  
 신청: 6월28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http://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방역지침 준수,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영성심리상담교육원 2021년 영성심리아카데미 프로그램 안내

대상: 만 20세 이상, 가톨릭 신자(단, 각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수강 대상이 따로 제시될 수 있음)  
 때: 7월~12월 / 교육명: 영성심리특강, 기도동반, 영성심리집단상담, 의사소통훈련, 피정 등(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게시판 참고)  
 신청: 홈페이지(<http://seoulcpc.catholic.or.kr>)-교육신청(온라인 화상 수업의 출결 확인을 위해 카메라 설치된 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등 사용 필수)  
 문의: 02)727-2126([tcpc@seoul.catholic.kr](mailto:tcpc@seoul.catholic.kr))

서울주보 인스타그램  
@seoul\_jubo

서울주보 인스타그램 QR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백신 나눔 운동 모금액 교황청에 1차 100만 달러 기부



천주교 서울대교구(교구장 염수정 추기경)는 6월 1일, '백신 나눔 운동' 모금액 100만 달러(한화 11억 1000만 원)를 교황청에 1차로 송금했습니다. 이 금액은 서울대교구 본당과 단체 234곳에서 모아 각 본당 사무실에 접수한 모금액 총 9억 5000만 원과 한마음한몸운동본부(본부장 김정환 신부)에서 모금한 2억여 원의 금액을 합친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백신의 보편적 보급'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지난 부활절을 맞아 발표한 '우르비 에트 오르비(Urbi et Orbi)' '로마와 온 세계에'라는 의미)에서 "국제 사회가 책임 의식을 갖고 백신 공급 지연을 극복하는 한편 특히 가난한 나라에도 충분한 백신이 돌아가도록 힘써 줄 것을 간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지난 3월 31일 발표한 부활 메시지를 통해 "지난 춘계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가난한 국가들의 코로나19 백신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한국 교회가 '백신 나눔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서울대교구 전체가 참여할 것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앞으로도 '백신 나눔 운동'을 통한 모금액을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이 금액은 가난한 나라를 위한 백신 나눔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4월 부활 시기를 기해 시작한 '백신 나눔 운동'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 폐막일인 11월 27일까지 계속됩니다.

## 백신 나눔 운동은?

백신 나눔 운동은 교황님의 뜻에 따라 가난한 나라의 백신 보급을 지원하는 운동입니다.

## 성금 액수는?

성금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참여 기간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이 종료되는 2021년 11월 27일까지입니다.

## 참여 방법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비신자 참여 가능).

**참여방법 ❶** 본당 사무실에 성금 접수(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참여방법 ❷** 계좌입금: 우리은행 1005-398-100101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세액 공제 받으실 분의 성함으로 입금하시고, 기부 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연락 주십시오(문의: 02)774-3488).



## 인준단체 알림

### 모임

**비대면 생활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돌개생활피정' / 최영민(예수회)

**살레시오 수도회 성소상담** / 문의: 010-2042-8353

대상: 고3·일반 35세 이하 미혼 남성 / 심재현 신부

**젊은이 여름 쉼 피정**

때: 7월9일(금)~11일(일) 2박3일 / 회비: 6만원

곳: 라베르나 기도의 집(평창) / 대상: 35세 미만 여성

문의: 010-5313-0241 아씨의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노틀담 교육관 묵상 피정**

때, 곳: 2박3일 6월29일~7월1일·7월15일~17일·7월28

일~30일 1박2일 7월9일~10일·7월23일~24일, 노틀담

교육관 피정센터(종로구) / 문의(접수): 010-4440-0731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내용: 야외미사, 성체조배 / 대상: 20세~39세

때, 곳: 7월3일(토) 17시~18시30분, 삼성산 성지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성서모임 열린미사(역삼동성당)**

청년성서모임 40대, 50대 성서가족들이 흥인식

신부와 함께하는 찬양미사 / 문의: 010-5229-9425

때, 곳: 매월 넷째주(일) 6월27일·7월25일 15시,

역삼동성당 및 온라인 / 유튜브 '열린미사' 검색

**호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7월23일~26일, 7월30일~8월2일, 8월13일~16

일, 8월20일~23일, 9월3일~6일, 9월24일~27일

곳: 성 도미니코 수도원(주최, 수유동)

회비: 36만원(호소비 포함) / 010-9363-7784 글라라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자연순례 피정: 7월23일~25일, 7월30일~8월2일, 8

월5일~8일, 8월12일~15일, 8월21일~23일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91차 7월16일(금)~24일(토) 문의: 061)373-3001,

제92차 8월13일(금)~21일(토) 010-3540-9001

**예수수도회 청년주말 피정**

대상: 미혼 33세 이하(선착순) / 문의: 010-2180-6531

자세한 안내는 카카오톡채널 '빛더하기\_예수수

도회'(http://pf.kakao.com/\_xcHkxl) 참조

|                     |                                                  |
|---------------------|--------------------------------------------------|
| 청년하루                | 7월4일(일) 13시~17시 / 회비: 1만원                        |
| 청년주말<br>(영신수련 침묵피정) | 7월10일(토) 15시~11일(일) 16시<br>메리워드센터(오류동) / 회비: 6만원 |

### 교육

**성물조각·목세공·가구 수강생 모집(가톨릭목공예)**

카페(cafe.naver.com/cmc04) 참조 / 문의: 010-5234-5044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미사반주법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때: 7월5일(월)부터 10주 / 문의: 02)338-3793

주최: 아쿠나소르간연구소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몸살림운동 수강생 모집**

바른자세 건강법, 자세교정운동 / 회비: 9만원(3개월)

때, 곳: 매주 (화)·(수) 14시~16시30분, 신당종합

사회복지관 / 문의: 02)2231-1876 유성민 복지사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입학생 모집**

기숙사 학교 / 기간: 장기(1년 이상)·단기(1년)

대상: 초5~고1 / 현지 코로나 백신 접종 가능

문의: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육내용: 커피의 전 과정(에스프레소·라떼아트·홈

바리스타·창업·로스팅·자격증(주1회·12주)

문의: 010-9040-8306(http://club.catholic.or.kr/barista)

담당: 이경훈 신부(coffee master)

**가톨릭대학교 문화영성대학원 2차 신·편입생 모집**

문화영성학(석사학위과정) / 전공: 문화영성, 사목영성

곳: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반포)

접수: 6월28일(월)~7월11일(일) / 면접: 7월19일(월) 예정

문의: 02)2258-7814(http://gcs.catholic.ac.kr)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바라지 신입생 모집**

대상: 학교 밖(학업중단·위기) 청소년(13세~24세)

교육과정: 검정고시교육, 대안교육(인문·목공·제과

제빵·바리스타·뷰티·3D프린팅·도예 등), 문화활동, 진

로탐색 및 상담, 동아리활동 / 문의: 02)2691-6543

블로그: https://blog.naver.com/baragee2016

곳: 살레시오 미래교육원(주최, 양천구 신월3동)

**서울대교구 북방선교회 중국어반(26차) 수강생 모집**

곳: 가톨릭회관 202호 / 회비: 7만원(3개월, 교재비 별도)

인원: 기초반 10명, 초급반 10명, 중·고급반 각 5~6명

개강: 7월7일(기초·초급반), 5일(중·고급반)

접수: 6월28일~7월7일(선착순) / 문의: 010-6219-1575

|     |                |                |
|-----|----------------|----------------|
| (화) | 기초반 10시30분~13시 | 초급반 14시~16시30분 |
| (목) | 중급반 10시30분~13시 | 고급반 14시~16시30분 |

**예수회센터 여름방학 특강(7월 개강·6주 과정)**

안전한 강의 환경을 위해 수강 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밖의 다양한 강좌에 관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                                |             |        |
|--------------------------------|-------------|--------|
| 하느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오해와 성서학적 진실 |             |        |
| 현장 강의                          | (수) 10시~12시 | 임숙희 박사 |
| 동영상 녹화 강의                      | 랭크 발송       |        |
| 육화의 영성-일상을 살아가는 영성과 겸손         |             |        |
| 현장 강의                          | (목) 10시~12시 | 손우배 신부 |
| 동영상 녹화 강의                      | 랭크 발송       |        |

### 모집

**대치2동성당 청년**

**필레몬합주단 단원 모집**

대상: 악기 연주 가능한 청년 신자

문의: 02)565-1994 대치2동성당 사무실

### 미사

**첫토요일 신심미사(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내용: 고해성사, 미사 /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7월3일(토) 오전 10시~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7층

**6월 영화 치유 미사**

내용: 단편영화 상영, 나눔,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6월30일(수) 오전 10시, 가톨릭회관 205-2호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7월2일(금) 14시~16시 / 지도: 양창우 신부

곳: 가톨릭회관(전철 4호선 명동역) 1층 / 문의: 02)929-2977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정선교회 7월 행사**

문의: 010-2367-2297, 010-6281-8626, 02)777-1773 대표

|               |                                                              |
|---------------|--------------------------------------------------------------|
| 첫토요일<br>신심미사  | 7월3일 14시~16시30분, 가톨릭회관 3층<br>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
| 성가정영성<br>일 피정 | 7월7일 9시30분~16시30분, 가톨릭회관 3층<br>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 회비 없음, 식수 준비 |

### 인사

**카타리나 피정집** / 문의: 010-9715-1203

곳: 성도미니코 전교 수녀회(황성) / 개인, 자체취사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전문심리상담: 가족치료, 개인, 부부, 종합심리검사

·심리정서(불안·우울·분노·공황장애) / (월~토) 진행

**성령 선교 수녀회(회화동) 피정**

개인 피정(수시 가능, 자체취사), 단체 피정(토·일·

당일 피정에 한하며 인원수는 5인까지 가능)

문의: 010-2539-4895 / blog.naver.com/msnc-ssps

**강서푸드뱅크·마켓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방법: 후원금, 식자재(쌀·라면·조미료 등) 및

생활용품 / 후원문의: 02)2635-1377, 02)2663-1377

후원금 계좌: 신한 100-026-821055 강서푸드뱅크마켓

**인천교구 청라3동성당 건립공사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참가등록: 7월5일~16일 / 현장설명: 7월24일(토) 14시

입찰: 8월6일(금) / 낙찰자 선정: 8월12일(목)

문의: 032)566-3217 / 자세한 사항(www.청라3동성당.ck) 참조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돌자비회수녀회)



## 요나 성당 수련원

대천해수욕장 성당(요나 성당)이 수련원 건물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바다의 자연을 감상하면서 하느님 안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 홈페이지: [www.yonaresort.com](http://www.yonaresort.com)  
숙박 문의·예약: 041)934-7758 요나 성당 사무실

##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http://www.karf.co.kr)

## 온라인 복음화학교 '치우치유TV' 구독 안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치우치유TV를 검색한 후 '구독'을 누르시면 됩니다 신앙인을 위한 신앙과 생활의 꿀팁 영상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올라옵니다  
문의: 02)753-8765 새천년복음화학교

## 응암동성당 '요셉 추모와 축복의 벽' 패 신청

추모패·축복패 접수 / 사용 기한: 무기한(단, 20년 이후 재건축 등의 상황 변화에 따라 기간 변동될 수 있음)  
대상: 고인(추모패), 세상을 살고 있는 교우·비신자 등(축복패) / 사용료: 1인패 100만원, 2인패 150만원  
혜택: 명절, 위령의날, 매일 합동 위령미사, 생미사봉헌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 문의 / 문의: 02)2021-2700

## 중림동약현성당 2022년 1·2월 혼인예약

중림동약현성당에서는 2022년 1·2월 혼인예약 예약을 선착순으로 접수 받습니다 / 문의: 02)362-1891  
때: 7월6일 오전 9시 / 준비물: 교적 사본, 예약금 60만원  
주의사항: 코로나19로 인하여 성당을 개방하지 않으니 접수 당일에 오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12월까지 예약은 10월 중에 추첨이 있습니다

## 제주도 관광

제주운전기사사도회에서 가족, 효도, 단체관광,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 아동청소년(장애 포함)과 성인을 위한 심리재활(무료)

대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아동청소년~성인 / 문의: 010-3703-5904 경혜자 수녀(심리재활전문가·상담심리전문가) 영원한도움의성모수도회 연남동 분원

## 서울가톨릭사회복지 마음자리 입소 안내

마음자리는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들의 편안한 생활터입니다 / 문의: 02)2691-4365, 010-6296-1045  
대상: 미혼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자녀 양육 지원이 필요한 미혼모 / 홈페이지: [www.majary.com](http://www.majary.com)  
지원내용: 출산 전·후 진료, 산후조리원 이용, 입양 숙려상담, 양육·자립 무상 지원 /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가 있으면 본 시설로 연락주세요  
곳: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53나길 53(화곡동)

##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여성의 전화 상담

|          |                                 |
|----------|---------------------------------|
| 여성 전화 상담 | (월~금) 10시~16시 / 문의: 02)990-9366 |
| 대면상담     | 심리·가족갈등 / 문의: 02)990-9360       |

##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www.jinaein.com>) 토요일 상담 가능

|                      |                                |
|----------------------|--------------------------------|
| 상처입은 마음치유와 가족관계 회복훈련 | 7월3일~8월21일 매주(토) 10시~13시(7주)   |
| 전문심리치료               | 가족(부부), 불안, 우울, 분노, 대인관계, 강박행동 |

## 성라파엘심리상담소

때: (월~일) 주말상담 / 070-4248-7573, 010-3008-4627

|         |                                                           |
|---------|-----------------------------------------------------------|
| 가족세우기   | 매주(토·일) 슬기로운 부모생활                                         |
| 전문 심리치료 |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 및 가족 개인(분노·우울·불안·부적응) 종합심리검사 / 비대면 화상상담 가능 |

## 유관단체 알람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02)776-7726  
심리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가톨릭회관 501호(명동) 정서 및 심리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청소년, 성인 및 심한 우울과 불안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

## 직원모집

세김정성당 주방근무자 모집 / 문의: 02)3217-9595

분야: 사제관 주방근무자 1명(계약직)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 경력자 우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통보)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에서 다운),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 6월30일(수) 까지 팩스(02-3217-9200)·이메일(khly88@naver.com)·우편(우 03018, 서울시 종로구 세검정로6길 38) 및 방문 접수

구의동성당 사무원 모집 / 문의: 02)3436-3090

분야: 사무원 1명(계약직,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교우로 회계 업무, 컴퓨터활용(한글·엑셀 등) 홈페이지 관리 가능한 분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에서 다운),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6월30일(수)까지 사무실 방문 접수  
1차(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통보)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 주방근무자 모집

곳: 혜화동, 도림동, 중곡동 / 대상: 세례받은 분  
분야: 주방근무자 0명(계약직) /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통보)  
우편(우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또는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7월4일(일)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문의

## 서울주보 게재신청 안내



- 서울주보 게재 신청은 문화홍보국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 서울주보 게재신청은 교회기관·수도회이거나,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서울대교구 사목국에 등록된 단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이 의뢰하는 광고나 상업적인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 게재 월로부터 한 달 전 첫째 주 화요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 한 단체에서 한 달에 4번까지 게재가 가능합니다.
- 내용 수정·취소는 주보 게재일로부터 2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 및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 수도회 상소모임  | 때                 | 곳                       | 문의                                     |
|-----------|-------------------|-------------------------|----------------------------------------|
| 도미니코 수도회  | 수시                |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 010-3012-2616 조성하 신부                   |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 7월4일(일) 9시30분~13시 | 본부(돈암동,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 02)924-3048(korvocation@coumban.or.kr) |
| 성 마리아 재속회 | 수시                | 양성센터(도봉구)               | 02)980-0385, 010-6462-0385             |
| 성모 승천 수도회 | 수시                | 본원(광주광역시)               | 010-3771-5098                          |
| 한국외방선교회   | 7월4일(일) 11시       | 본부(성북동)                 | 010-8715-2846 성소국장 신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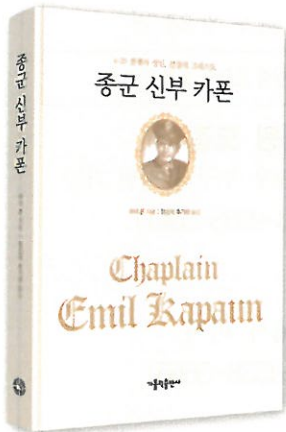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 휴가철 추천 도서

# 조급해하지 말고, 잠시 쉬어 가도 좋아요



### 종군 신부 카폰(개정판)

6·25 전쟁의 성인, 전장의 그리스도

| 아더 톤 지음 | 정진석 옮김 | 18,000원

먼 이국땅에 파견되어 6·25 전쟁에 참전한 에밀 카폰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돌보아 전장의 그리스도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많은 군인들을 사목하여 하느님께로 이끈 카폰 신부의 모습을 사진과 함께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정진석 옮김은 6·25 전쟁에 함께 참여한 카폰 신부에게 깊은 감명을 받아 신학생 때 이 책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선종하기 전까지 이 책을 개정하는 데에 각별한 애정과 힘을 쏟았습니다. 정진석 옮김에게서 마지막으로 작업하신 이 책을 통해 참사제를 만나 보세요.



### 휴가철 추천도서

### 심, 주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 일상에 필요한 작은 심표,  
피정으로 찾는 신앙의 길

| 카를로 마리아 마르티니 지음 | 안소근 옮김  
13,000원

밀라노 대교구장이었던 카를로 마르티니 추기경이 사제들을 위한 피정에서 주님의 기도를 주제로 했던 강의를 엮은 책입니다. 분초를 다투는 바쁜 일상을 벗어나 휴식을 원한다면, 이 책 속으로 잠시 피정을 떠나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 삶 안에서 어떻게 녹여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 휴가철 추천도서

### 하느님도 쉬셨습니다

너무 지쳐 더 이상 지칠 것도 없다는  
당신을 위한 솔루션

| 페터 아벨 지음 | 임정희 옮김 | 13,000원

일어나기 싫은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격하게 퇴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어쩌면 번아웃 증후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와 친숙한 성경 속 인물들도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합니다. 존경받는 신앙의 선조들은 이를 어떻게 극복해냈을까요? 번아웃을 이겨낼 영적인 방법을 이 책을 통해 만나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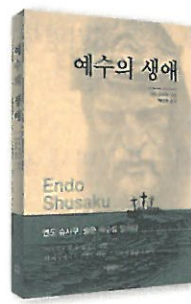
### 신간 도서

### 안셀름 그윈의 의심 포용하기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걸까?  
내 마음속 의심을 돌아보는 시간!

| 안셀름 그윈 지음 | 황미하 옮김 | 14,000원

가톨릭 대표 영성가인 안셀름 그윈 신부가 다양한 주제와 '의심'을 연결해 깊이 묵상합니다. 특히 성경 속 인물들이 의심을 품었던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의 삶과 믿음을 성찰해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지금 믿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면, 내 안의 의심을 제대로 바라보고 삶의 의미를 찾아 보는 건 어떨까요?



### 신간 도서

### 예수의 생애(개정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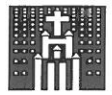
세계적인 작가 엔도 슈사쿠,  
슬픈 예수를 말하다

| 엔도 슈사쿠 지음 | 이평춘 옮김 | 16,000원

이 책은 일본의 소설가 엔도 슈사쿠가 예수의 삶을 신학적 지식, 깊은 신앙, 소설적 상상력 등을 통해 흥미진진하게 그려낸 소설입니다. 예수 성심 성월을 맞아, 그리스도의 삶을 깊이 묵상해 보며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제2188호(성 바오로 사도 개종 축일)



# 연회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령회장 : 차명국(비오로) 010-5512-4450

|       |                                                                                                                                                              |         |                      |
|-------|--------------------------------------------------------------------------------------------------------------------------------------------------------------|---------|----------------------|
| 주일 미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요일: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li> <li>주 일: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li> </ul> | 유 아 세 례 | 홍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
|       |                                                                                                                                                              | 혼 인 면 담 |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
| 평일 미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요일: 06시 화요일: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06시, 10시 토요일: 06시</li> </ul>                                                          | 성모신심미사  |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 ◎ 류시창 베드로 주임신부님 영명축일 · 은경축

축하식 : 7월 4일(주일) 11시 미사

※ 신부님께 하느님의 은총이 늘 충만하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 백신접종자 스티커 부착 및 자리 안내

- 바코드카드에 백신 1차 접종자는 빨간색 스티커를, 2차 접종자는 노란색 스티커를 붙여 드립니다.

- 7월 1일부터 '예방접종자'는 정규 미사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에서 제외하고, 성가대 및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활동이 가능합니다(마스크착용필수).

- 1차, 2차 접종자 모두 노란색 스티커가 붙어있는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자리가 모자라는 경우 봉사자들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바코드카드 없는 교우분은 사무실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 성모 신심 미사 : 7월 3일(토) 오전 10시

◎ 유아세례 : 7월 4일(주일) 오후 4시 30분

◎ 시니어대학 학생에게 책 및 손 소독제 배부

코로나 19로 시니어대학 개강을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성심성월을 맞아 영적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신약성경, 쓰기성경, 성모님의 일생 컬러링북, 마태오복음서에서 꼭 알아야 할 100문제집을 드립니다.

일시 : 6월 6일~7월 매주일 07시, 09시, 11시 미사 후,  
평일 미사 후

장소 : 교육관 1층, 사무실

문의 : 사무실 (☎ 02-323-4450)

## ◎ 청년 예그리나 전례단 단원 모집

자격 : 20세 이상 세례받은 성인교우 누구나 지원 가능  
문의 : 단장 문성호 토마 (010-9935-6091)

## ◎ 평일미사 반주자 모집

봉사시간 : 수요일, 금요일 06시 미사

문의 : 최윤희 아네스 (010-4538-5665)

## ◎ 교무금 책정 현황 (2021. 6. 20.)

| 총세대   | 책정 세대 | 미책정 세대 | 2020년 책정율 | 2020년 납부율 | 2021년 책정율 | 2021년 납부율 |
|-------|-------|--------|-----------|-----------|-----------|-----------|
| 2,201 | 790   | 1,411  | 45.2%     | 42.0%     | 35.9%     | 34.0%     |

|         |      |               |
|---------|------|---------------|
|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 오늘은 교황주일 2차헌금이 있습니다.

## ◎ 리모델링 기금 (6월 14일~20일)

강호진 ..... 일백만원

누 계 ..... 902,921,261 원

## ◎ 감사헌금 (6월 14일~20일)

김형준 ..... 일십만원 고경미 ..... 일십만원

박수연 ..... 삼만원 윤미영 ..... 오만원

이지혜 ..... 일만원

## ◎ 우리들의 정성 (연중 제12주일)

교무금 ..... 7,215,000 원

주일헌금 ..... 4,731,790 원

민족화해 2차 헌금 ..... 2,148,000 원